



정혜엘리사벳
 ST. JEONG-HAE ELIZABETH KOREAN CATHOLIC CHURCH
<http://www.sackcc.net>

주임신부: 김원현 베드로 916-207-4806
 본당부제: 김상돈 도미닉 916-580-8519
 사목회장: 김규철 레 오 952-836-7117
 연령회장: 최중구 안토니오 916-747-8431

ST. JEONG-HAE ELIZABETH KOREAN CATHOLIC CHURCH 9354 Kiefer Blvd. Sacramento, CA 95826
 사무실 : 916-368-9204

오늘의 말씀	제1독서	민수기 6:22-27	제2독서	야고보서 4:13-15	복음	루카 12:35-40
--------	------	-------------	------	--------------	----	-------------

◎말씀 “잘못을 하고도 고치지 않는다” (過而不改)

안녕하세요! 교우 여러분!!
 오늘은 설 명절입니다. 하느님과 조상님들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미사를 드리도록 준비합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두 가지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혼인 잔치에 관한 이야기와 도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삶에 있어서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준비하고 있어라’ 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즉 종말에 대한 준비를 하라고 하십니다. 늘 준비하고 산다는 것은 늘 긴장을 늦추지 말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살면서 어떻게 긴장만 하면서 힘들게 살겠습니까? 음, 그러니까 신앙인으로서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면서 닥쳐올 날에 준비를 하라는 것이죠. 여행을 떠나거나, 행사를 치를 때, 꼼꼼하고 세심하게 준비를 잘해 온 사람이 있는가 하면, 늘 원가를 빠뜨려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도 있지요.

전국 대학교수들이 2022년도를 정리하는 사자성어로 ‘잘못을 하고도 고치지 않는다’ 는 뜻의 ‘과이불개(過而不改)’ 를 꼽았습니다. ‘과이불개 사위과의 (過而不改 是謂過矣)’, 즉 “잘못을 하고도 고치지 않는 것, 이것을 잘못이라 한다.” 라고 했습니다. 잘못을 하고도 고치지 않는다면 닥쳐올 종말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이겠지요. 세월호와 이태원 참사를 보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준비되지 않았고 무책임한 책임만을 드러내는 책임자들을 보면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준비하지 않은 인간들 때문에 종말을 앞당기는 것 같습니다.

요즘 지구의 종말에 가속도를 붙이는 일들이 많은데 두 가지만 얘기하면, 땅과 바다 그리고 동식물과 심지어 인간에게 피해를 주는 ‘지구의 기후위기’ 와 ‘미세플라스틱’ 입니다. 인간의 편리함을 위하여 자연을 생각하지 않고 무작정 탄소배출을 하여 지구를 못살게 합니다. 인간도 고생길이 험합니다. 또 여기서는 탄소배출을 줄이자고 노력하는데 저기서는 전쟁을 하면서 화염에 휩싸이게 하면 허탈한 맘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산업화하는 과정에서 기적의 발명품이라고 하는 ‘플라스틱’ 은 이제 골칫거리가 되었습니다. 플라스틱은 가볍고 단단하고 어떤 형태로든 만들 수 있는 마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분해가 되지 않고 삭아서 갈가리 찢어져 ‘미세플라스틱’ 이 됩니다. 미세플라스틱은 음식을 통해서 인간도 섭취하게 됩니다. 편리했던 발명품이 이제 인간을 공격합니다. 큰일이죠. 큰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게 다~ 인간의 편리와 탐욕 때문에 종말을 당기고 있습니다. 탐욕 때문에 우리가 망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행동을 수정하지 않는다면, 즉 잘못을 하고도 고치지 않는다면 종말을 준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종말을 망치는 사람이 되겠지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과유불개 하지 말고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라’ 고 말합니다.

일 자	전 려 력	미사시간	우리들의 정성(지난주)	
1월24일(화)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주교학자 기념일	저녁7시30분	주일헌금 교무금	\$ 1,148.00 \$ 3,330.00
1월25일(수)	성 바오로 사도의 회심 축일	오전8시	성소후원 자선비	\$ 160.00 \$ 142.00
1월26일(목)	성 티모테오와 성 티토 주교 기념일	저녁7시30분	성물방	\$ 56.00
1월27일(금)	연중 제3주간 금요일	저녁7시30분		
1월28일(토)	성 토마스 아퀴나스 사제 학자 기념일	저녁7시30분	합 계	\$ 4,836.00
1월29일(일)	연중 제4주일	오전 9시 오전 11시	미사참례자	학생: 8명 성인: 170명
교무금 봉헌자	정태환(1-6)장현철(1-3)고원석(10-3)오영자.김수용.장순옥.김옥동.이수동.최중구.김길록.류승교. 이의웅(1-2)금의주(12-1)이대원.김주동.김계숙.성영진,이재덕.박병수.전우성.안강순.안기창(1)			

"가톨릭과 제례"

설과 한가위 등 명절에 지내는 차례는 이웃 종교의 예식인가요

“너희는 타작마당과 술틀에서 소출을 거두어들일 때, 이레 동안 초막절 축제를 지내야 한다. 너희는 축제를 지내는 동안, 너희의 아들과 딸, 남종과 여종, 그리고 너희 성안에서 사는 레위인과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기뻐하여라.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의 모든 소출과 너희가 손대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어, 너희가 한껏 기뻐하게 될 것이다.”
(신명 16, 13-15)

농경 국가였던 우리나라에서 한 해를 시작하는 정월 초하루와 풍성한 결실의 시기인 음력 팔월 보름인 한가위 등 명절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 이때 사람들은 조상에게 차례를 지내고 이어 집안 어른들에게 세배하며 가까운 집안끼리 모여 성묘를 한다.

명절에 행하는 여러 풍습 가운데 조상 제사라는 유교적 요소, 집안의 평안을 비는 무속적 요소, 한 해의 운수를 살피는 민간 신앙의 요소도 있지만, 명절의 주된 의미는 돌아가신 조상을 기억하며 살아 있는 가족과 친지가 서로 만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명절의 풍습은 특정 종교의 예식이라기보다는 전통 미풍양속이다.

각 민족 고유의 문화를 존중하고 그것을 신앙의 빛으로 이해하려는 가톨릭교회의 가르침에 따라 가톨릭 신자들은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가족과 친지들과 함께 명절을 뜻깊게 지내야 한다. 농경 문화가 사라진 지역의 신앙 공동체와 가정에서는 명절의 의미를 계승하기 위해 형편에 맞는 적절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톨릭 신자가 유교의 상장례와 제례를 지내도 되나요

한국 천주교에서 현재 사용하는 상장례의 전통은 유교 관습의 일부를 받아들인 것이다. 비오 12세 교황이 승인한 「중국 예식에 관한 훈령」(1939년)에 따르면 “시신이나 돌아가신 분의 상 또는 단순히

이름이 기록된 위패 앞에 머리를 숙임과 기타 민간적 예모를 표시하는 것은 가능하고 타당한 일”이다.

이 훈령에 따라 한국 주교단이 마련한 상장례와 제례에 대한 상세한 지침(1958년)은 가톨릭 신자가 유교적 의례를 거행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그렇지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행위는 금지한다. 곧 제사에서 조상 신령에게 고하는 축문과 훈령이 제물을 흠양하도록 문을 닫고 참석자들이 잠시 물러나는 합문, 장례에서 죽은 이의 혼을 다시 불러들이는 예식인 고복과 죽은 이의 혼을 고이 모시고 저승으로 가라는 뜻으로 저승사자를 위해 밥과 신발을 상에 차려 놓는 사자밥, 그리고 죽은 이의 입에 쌀과 엽전 또는 구슬 등을 넣는 예식인 반항 등의 풍습은 그리스도교 신앙에 어긋난다.

가톨릭 신자는 제사를 어떻게 지내야 하나요

제례의 근본 정신은 조상에게 효를 실천하고, 생명의 존엄성과 뿌리 의식을 깊이 인식하며, 조상의 유지에 따라 진실한 삶을 살아가고, 가족 공동체의 화목과 유대를 이루는 것이다. 나이가 들어 입교한 신자 중에는 어려서부터 제례를 지내온 분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신자 가정 가운데에서도 제례를 지내는 경우가 있다. 한국 교회는 이러한 전통 제례의 아름다운 정신을 복음의 빛으로 재조명해 시대에 맞게 적절한 표현 양식을 찾고 있다.

가톨릭 신자는 명절이나 기일 등 조상을 기억해야 하는 특별한 날에 우선으로 위령 미사를 봉헌하지만, 다음과 같이 제사와 차례를 지낼 수 있다. 고해성사를 통해 마음의 준비를 하고 단정한 몸가짐과 복장으로 십자고상과 조상의 영정이나 이름을 놓고 정성껏 상을 차려 제사를 거행한다. 제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응답하는 말씀 예식과 분향, 큰절, 음복의 전통 추모 예식 등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신위, 신주, 위패, 지방 등은 죽은 이의 신원을 표시하는 용어이다. 그러나 이들이 조상에 대한 기억을 넘어 조상 숭배를 연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조상의 이름’이나 ‘조상의 사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늘의 미사지향 (미사신청: 박울리아.916-990-6531/박프란치스코.909-573-5322)●

구분	지향	봉헌자	구분	지향	봉헌자
연	설 합동 위령 미사		생	본당 신부님 영육건강	김수산나
			생	조유원 요셉 영육건강	조윤희 밀지다
			생	이혜자 건강 회복	이영래 루치아
			생	장진 스텔라 영육건강	정혜엘리사벳회

●공동체 소식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 요한 17:21)

1구역(FE).2구역(F0).3구역(PC).4구역(NH).5구역(GF).6구역(RC).7구역(RT).8구역(NC).9구역(EG).10구역(DW)

<기도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

1. 본당 꼬미시움

일시: 15일(일) 교중미사후 엘리사벳방
 참석대상: 각 브레시디움 4간부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2. 설 합동위령미사

일시: 22일(일) 오전11시. 교중미사중
 미사 30분전부터 합동연도가 있으며 미사 중에 가족 분향이 있으니 가족이 함께 앉아주십시오. 미사 후에는 친교실에서 떡국나눔과 구역별 율놀이가 있습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오랜만에 즐거운 친교시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3. 성령찬미미사 및 성시간

일시: 27일(금) 저녁8시.성당
 저녁7시(찬미) 저녁7시30분(묵주기도)
 저녁8시(미사, 성시간 및 안수)
 은혜로운 시간이 되도록 많이 참여해주세요

4. 본당 꾸르실료 울뜨레야 신년 모임

일시: 29일(일) 오후12시30분 장소:구사제관
 대상: 본당 꾸르실리스따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5. 성서40주간 개강안내: 1학기(2월~5월)

개강미사/오리엔테이션: 2월1일(수)저녁7시.성당
 강사: 권영량 마리크리스티나 수녀(714-900-0282)
 교재배부: 29일(일) 성당에서 찾아가세요
 문의: 교육부 최금주 요안나 (530-902-7844)
 전우성 베드로 (415-652-7819)

6. 모임 및 활동안내

청년회 : 22일(일) 교중미사후 성당
 연령회 : 29일(일) 교중미사후 엘리사벳방
 6구역모임: 29일(일) 오후4시 박병수.벤자민 자택

7. 여성단체 성모회 회원모집 합니다

대상: 60세~75세 문의:황아바 (916-835-3678)
 많은 관심과 가입 바랍니다.

8. 정혜도서관 개방 안내

일시: 22일(일) 교중미사후
 매월2회 (첫째, 셋째주일 교중미사후)
 문의: 교육부 최금주 요안나 (530-902-7844)
 전우성 베드로 (415-652-7819)

9. Donation Statement

2022년 텍스리턴 관련 Donation Statement
 필요하신 분은 사무실에 신청 바랍니다.

◎ 경북 영양 고춧가루 판매(공소부): \$45/1kg

<< 주일학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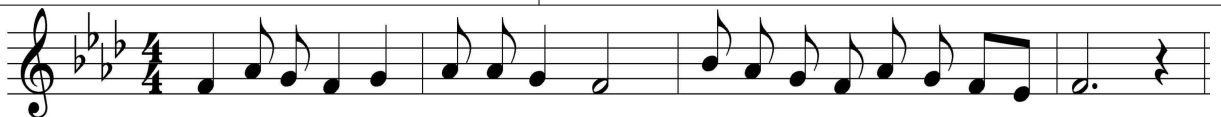
2023 봄학기 주일학교 개강 미사

개강미사: 2월 5일(일) 오전9시
 수업시간: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11시
학생미사때 좌석배치 (적극 협조바랍니다)
 어린이·학부모: 독서대 앞쪽 (성가대)
 성인 : 미사해설대 앞쪽 (감실)

주일학교 어린이 복사단 교육 안내

일시: 22일(일) 오전 9:30~10:30, 성당
 29일(일) 오전 10:00~11:00, 성당
 추후에도 교육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복사단에 관심있는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문의: 박희현 세실리아 (916 850 5320)

화답송



주 하느님의 어 지심 을 저 희 위 에 내 리 소 - 서

전례봉사	연중 제8주일 (1/22)	연중 제4주일 (1/29)	연중 제5주일 (2/5)	연중 제6주일 (2/12)
미사해설	김선식 / 정미정	김선영 / 김은영	박문교 / 오민정	이주연 / 김진영
복 사	김병수 마티아	송돈희 요셉	윤지현 제임스	최준우 루카
헌금위원	천상의모후Pr.	셋별Pr.	천상의모후Pr	셋별Pr.

(광고)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 요한 17:21

주보제작: 박봉준. 프란치스코살레시오(909-573-5322) E-Mail: bongjun5322@gmail.com

Samurai Sushi

12251 Folsom Blvd.
Rancho Cordova, CA95742
신영후(토마스)
916-353-1112
samuraisushisac.com

1.2.3 Auto Body 정비

11357 Pyrites Way
Suite B1, Rancho
Cordova CA 95670
이호영(호영베드로)
916-366-0123

FARMERS 배정순 종합보험

사업/상해/자동차/집/
건강/생명보험/연금
9545 Folsom Blvd # 1
Sacramento, CA 95827
916-362-3300 (O)
916-475-3770 (C)

최병엽공인회계사

Byungyeub Choi CPA &
Associates Inc.
9521 Folsom Blvd. suit P
Sacramento, CA 95827
(Butterfield Plaza#P)
최병엽(바오로)
916-363-2345

에어컨 수리

Air Conditioner
Service & Repair

배용환(울리아노)
916-548-3278
916-362-3300

클라라 가정양로원 (Clara Care Home)

4665 Freeway Cir.
Sacramento, CA 95841
김재열(스테파노)
김옥기(클라라)
530-771-7715
530-204-8878

Angel Garden Care Home

9873 Traveler Court
Elk Grove, CA 95624
조영숙(도미니카)
530-886-9529
ycho11281128@gmail.com

장 의사 W.F.Gormley&Sons Funeral Home

Family Owned Since 1897
Preneed Services
Available
916-443-6513
www.gormleyandsons.com
모든 장례예절 성실히 봉사

전주곰탕 & BBQ

9545 La Rivera Dr.
Sacramento, CA 95826
(구 아시아마켓)
임복순(골롬바)
916-382-9699 (C)

서은미 부동산



950 Iron Point Rd., #170
Folsom, CA 95630
서은미(안나)
916-600-1936

메리서 부동산·용자·재정서비스

- 주택/상가/상업/부동산관리 및 자문
- 주택용자/SBA/Commercial/Land
- 은퇴-자산-재무설계/재산관리

서주연(마리아)
916-271-3671 · maryseo@gmail.com
CALIFORNIA . GEORGIA . HAWAII

약사에게

물어보세요

Aeyon Lee RPh
(이애연 플로렌시아)

개인면담(사전예약필요)
교중미사후 친교실(격주)
916-276-1834
aeyon7511@gmail.com

양업토마스공동체

(리노공소) 후원

고추장. 된장. 도토리 국수. 참기름. 고춧가루 판매
리노공소 기금마련을 위한 수익사업입니다.
공소부장(916-591-0179)

교무금 봉헌 은행계좌 안내

입금은행: Wells Fargo

은행주소: 9500 Micron Ave Suite 130

예금주: Pastor of St Jeong-Hae Elizabeth

계좌번호(Account#): 360 184 1897

교무금 등 각종 봉헌은 주님께 받은 은총에 대한
감사의 표시이며, 모든 신자의 의무사항입니다.